

#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사작전 원칙에 관한 연구

이강언\* · 최성수\*\*

## 목 차

- I. 머리말
- II. 군사작전 원칙의 이론적 고찰
- III. 군사작전 원칙 적용 실태
- IV. 전쟁수행방식 변화와 군사작전 원칙 적용상 문제점
- V.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새로운 군사작전 원칙 제안
- VI. 결론

## I. 머리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인류는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민족의 부침(浮沈)을 경험하여 왔다. 따라서 많은 군사전략가 및 군사이론가와 전쟁지도자들은 “전쟁의 본질적 현상은 무엇이며 전쟁의

---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육군대학 교관, 육군대령

승패요인을 집약시킬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전장원리를 정립할 수 없는가?”라는 의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정으로 나타난 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군사작전 원칙인 것이다.

즉 ‘군사작전 원칙’<sup>1)</sup>은 어느 특정시대나 특정전쟁 또는 특정인에 의하여 도출된 전장원리가 아니라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통하여 얻어진 교훈이 여러 전쟁이론가들에 의하여 다듬어진 최선의 공약수로서의 전쟁지배원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작전의 원칙은 시대의 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차 예상되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그 원칙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군사과학기술의 발달은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예전에는 수년, 수개월이 걸리던 전쟁이 이제는 수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종결시킴으로써 최소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미군에 의해서 수행된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은 새로운 전쟁 수행개념의 패러다임을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 이에 따라 미군에서는 지금까지 통용되어온 전쟁 원칙이 여전히 현대전 및 미래전에서도 적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해군연구소의 군사전문 학술지인 『Proceedings』 2003년 10월호 게재된 『전쟁 원칙의 신사고(Rethinking the Principles of War)』를 들 수 있다.<sup>2)</sup>

우리 육군에서도 현 지상군 기본교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사작전 원칙에 대해서 보완 및 추가적인 원칙을 제시하려고 연구 중에 있다.

- 1) 군사작전 원칙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된 것은 2002년 지상군기본교리가 개정되면서이며 이전에는 “전쟁원칙”, “지상작전 원칙”으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군사작전 원칙”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 2) 김덕근, 권영근 譯, 『군사작전 원칙의 신사고』(서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 : 이 논문에서 미군은 군사작전 원칙을 “합동작전 원칙”으로 바꾸게 된 배경, 군사혁신과 변혁의 문제, 21세기를 염두에 둔 장교교육 혁신의 문제, 작전술, 교리, 전략, 분쟁 이후의 문제, 군사정보의 문제 등 전쟁의 전략 및 작전적 수준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군의 군사작전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현 육군의 지상군 기본교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사작전 원칙은 최초 미군의 원칙을 그대로 수용하여 사용하다가 점진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게 보완 발전되어 온 것에는 틀림이 없으나 현대전쟁 수행방식의 변화에 맞게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집중의 원칙측면에서 병력에 의한 집중을 화력에 의한 집중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또한 부대는 화력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운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군사작전 원칙은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구현할 수 있는 지침으로 사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군사작전 원칙을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 세계 주요 국가의 군사작전 원칙과 우리 군의 군사작전 원칙을 현대의 전쟁환경 관점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군사작전 원칙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군사작전의 범위는 매우 방대하다. 최근의 제4세대 전쟁을 비롯한 테러, 마약과의 전쟁 등 그 종류는 점점 더 진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전 군사작전에 대한 원칙을 망라하기보다는 전면적 재래식 전쟁을 대상으로 연구하되, 미래의 전장환경에 적합한 군사작전을 대상으로 논의의 중점을 한정하도록 하겠다.

## II. 군사작전 원칙의 이론적 고찰

군사작전 원칙이란 “전쟁수행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 전쟁의 법칙과 원리에 기초를 두고 경험요소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고, 이의 적절한 적용은 지휘권 행사와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sup>3)</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육군본부, 『전쟁원칙 적용전망』(1992), p.24.

이러한 군사작전 원칙의 역할은 전쟁사를 분석하고 평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적 역할과 불확실한 전장 속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써 지휘관이 전투를 올바르게 지휘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군사작전 원칙은 수많은 전쟁경험을 통해 얻어진 귀납적인 결론이기에 그 효용성측면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군사작전 원칙은 전략적 이론, 개념 및 계획의 수립자들과 그 평가자들의 견전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실용성 있는 참조표로 사용 할 수가 있다.<sup>4)</sup> 또한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군사 지도자에게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작전 원칙을 도출해 내기 위한 노력은 중국의 손자에서부터 19세기 풀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거쳐 왔다. 죠미니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은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원칙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원칙은 불변이며 무기의 종류와 역사적 시간 및 장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죠미니는 그의 저서 “전쟁술”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한 모든 작전에는 기본이 되는 하나의 위대한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4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십 개의 전사연구를 통해 전쟁 원칙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현대적 전쟁원칙을 정립한 인물은 영국의 풀러(John Frederick Charles Fuller)이다. 풀러는 “전쟁에 있어서 불변적인 것은 없는가를 자문해보고, 그것은 바로 전쟁원칙이며, 군대의 혁명적 변화는 전쟁의 원칙을 변화하는 상황에 적용하는 데 있다”<sup>5)</sup>라고 제시하였다. 이후 1920년에 영국군은 풀러의 의견을 수용하여 『작전요무령』에 8가지의

4) 육군교육사령부, 『군사이론 연구』, p.223.

5) J.F.C. Fuller, *Armored Warfare*, 최완규 역, 「기계화전」(서울: 책세상, 1999), pp.51~52.

전쟁원칙을 공식적으로 반영하였다.

군사작전 원칙은 매우 개념적이고 포괄적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군사작전 원칙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준칙이다. 즉 준칙이란 군사작전 원칙을 특정작전의 형태에 맞도록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장기능은 이러한 군사작전 원칙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군사적 활동이 전장에서 전력발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역할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군사작전 원칙 적용실태

세계 각국은 동일한 군사작전 원칙을 채택하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각국의 역사와 군사적 전통, 그리고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고유의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 등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군사작전 원칙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는 목표, 세, 집중, 절약, 기동, 지휘통일, 경계, 기습, 간명성 등 9개의 원칙과 “자제, 끈기, 합법성 등 3개의 전쟁이외의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목표의 선정과 유지, 사기 유지, 경계, 기습, 공세적 행동, 전력 집중, 절약, 융통성, 협동의 9가지를 선정하고 있다. 일본은 목표, 주도, 집중, 기동, 기습, 보전, 통일, 간명, 경제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군은 최초에는 미군들의 군사작전 원칙(9개)을 도입하여 그대로 적용하다가, 점진적으로 우리의 실정과 정서에 맞도록 발전시켜 적용하고 있다. 특히 1983년에는 과학무기의 발전과 현대전 성격의 변화에 따라 정보, 창의, 사기의 원칙을 추가하고 통일과 간명의 원칙을 삭제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이 채택하지 않은 “정보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는 고도로 과학화되고 있는 현대전의 특성에 부합하고자 반

영한 것이다. 그러나 1989년 작전요무령에는 제 전장기능의 통합, 제병 협동, 연합 및 합동작전에서 지휘통일 및 노력의 통합이 중요시됨에 따라 “통일의 원칙”을 다시 추가하였다. 1996년에는 다시 간명의 원칙을 포함시켰고, 1999년에는 절약의 원칙을 다시 추가하였다.

육군은 2005년에 육군의 최상위 교범인 『지상군 기본교리』를 발간 하면서 전쟁원칙을 “군사작전 원칙”으로 개칭하고 “목표, 주도권, 집중, 통합, 기동, 지휘통제, 방호, 정보, 사기, 지속성” 등 10가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IV. 전쟁수행방식 변화와 군사작전 원칙 적용상 문제점

##### 1. 전쟁수행개념의 변화<sup>6)</sup>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무기체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작전수행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전쟁개념에 바탕을 두고 적용하여 온 군사작전원칙을 미래의 전장에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과연 현재의 군사작전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는 최근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통하여 효과중심전, 신속결정적 작전, 네트워크중심전, 정보·사이버전으로 전쟁수행방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쟁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전 전쟁수행 개념의 변화를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6) 권태영 박사의 3, 『미래전 양상연구』(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4), pp75~77, p.149. 재구성

첫째, 네트워크 기반 작전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지상군의 전통적인 전쟁이 플랫폼별 독자적인 탐지-타격수단을 이용한 형태로 수행되어 왔다면 미래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제 작전요소들이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다. 네트워크화 작전환경에서는 복합타격체계(C4ISR+PGMs) 운용이 보편화될 것이며, 제 작전요소들이 넓은 영역에 분산된 상황에서도 전장정보를 상호공유 및 활용함으로써 지휘관 의도의 신속한 구현과 작전 목적 달성을 위한 전투력의 동시·통합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지식·정보 기반이 작전의 핵심이 될 것이다.

미래전에서도 기동과 화력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될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화된 전장환경에서 적과 아군, 그리고 작전환경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지식·정보의 우위달성 여부가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정보우위 및 공유를 통해서 지상군 지휘관은 적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휘결심의 완전성을 보장받게 된다. 이러한 제반 지식·정보를 지휘관 및 부대가 공유한 가운데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상대적 전투력 우위 달성 과 주도권 장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인명을 중시하는 작전으로 변화될 것이다.

미래에는 도시화와 인구집중 현상으로 작전환경이 변화되고 무기체계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단기간 내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중 언론매체의 발달로 물리적인 대량살상이나 민간인 피해 발생시 실시간대의 전파를 통한 반전여론이 조성되어 국내 및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아군의 피해 역시 반전여론이나 사기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래전은 인명을 중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념으로 변화할 것이다.

넷째, 승수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동시·통합전으로 수행될 것이다. 네트워크 기반 작전환경에서의 작전수행은 제반 능력과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동시켜 전력운용의 승수효과를 달성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동시·통합전은 분산된 위치에서도 가용 전투력을 시·공간면에서 동시 운용하여 적 전투력의 균형을 와해시키고, 중심을 파괴하기 위해 모든 능력과 활동을 연동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전은 전략적, 작전적, 기술적 수준 등 전 제대에서 다양한 형태의 동시·통합적 노력을 통해 승수효과를 달성하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전쟁을 통하여 정립된 전통적인 군사작전 원칙을 미래의 전장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과연 현재의 군사작전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 2. 군사작전 원칙 적용상의 문제점

최근의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토대로 군사작전 원칙을 분석해 보았을 때 목표, 기동, 집중, 지휘통제의 원칙은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 1) 목표의 원칙

목표란 “군사작전을 통하여 이루거나 도달하려고 하는 대상 또는 최종적인 상태나 지향점을 말하며, 유형적인 대상물이 될 수도 있고, 무형적이 될 수도 있으며, 명확하고 달성 가능하여야 하고 부대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결정적이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sup>7)</sup> 목표의 원칙은 군사작전 원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지배적인 원칙이라고 인식되어

---

7) 육군본부, 전계서, 2005, pp,2-8~9.



왔다.

군사적 목표는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차원에서 적용되며 상호 연계되어 작전을 수행해야 하고, 각 작전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즉 작전적 목표는 전략적 목표달성에 기여해야 하며, 전술적 목표는 가장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작전적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작전이 수행되기 이전에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모든 제반 작전활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황자체의 변화로 인하여 군사적 목표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군사지휘관은 군사적 목표의 변화를 야기하는 정치적 목적들의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여 이에 따라 목표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목표의 원칙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로버트 레오나드(Robert R. Leonhard)는 “정보화시대의 전쟁에서 전략적 수준에 적용되는 목표의 원칙은 ‘선택가속도’라고 부르는 것으로 융화되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가속화의 의미는 적의 대응보다 더 빠른 수준으로 신속하게 목표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보화시대에는 정보수집자산의 발달로 인하여 전략적 목표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군사작전 원칙으로 “선택가속도와 목표의 원칙”<sup>8)</sup>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선택가속도의 의미는 선정된 목표를 작전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시키면서 최종상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네트워크 발전은 네트워크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에 보고, 피·아에 대한 상황판단의 신속성으로 인해 목표의 변형 상가능해졌다. 이는 군사적 목표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형할 수 있으며, 일순간에 정치적 목적도 달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능력은 피·아의 상황파악과 실시간 정보교환 및 공 보 고리고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효과적인 타격수단에 의해 달성할 수 있

8) Robert R. Leonhard, Principles of War for the Information Age, 문장열 역, 「정보시대의 군사작전 원칙」(서울 : 국방대학교, 2003), p.89.

게 되었다. 장차전은 네쟁의 원인과 군사행동 양상 상복잡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명확한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 상중요하며, 이러한 목표는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목표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차전에서는 목표자체보다 어떠한 목표를 선정하는 나 즉, 적의 중심 파악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 2) 기동의 원칙

기동이란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이점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대와 자원을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이동시키는 것”<sup>9)</sup>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적을 불리하게 만들고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물리적 기동뿐인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리적 기동은 전장에서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적군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 중에는 정밀타격능력뿐만 아니라 적보다 우세한 전투편성, 언론매체를 활용한 심리전을 통해 적보다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기동을 통하여 행동의 자유를 획득 및 유지하고 아군의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동을 통하여 행동의 자유를 획득 및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적의 위치와 기도를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음으로 적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기동 그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 3) 집중의 원칙

집중이란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상대적 우세를 달성하는 것”<sup>10)</sup>이

9) 육군본부, 야전교범 0 『지상군 기본교리』, (2005), p,2-10.

10) 상계서, pp,2-10.

다. 고대 그리스시대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병력의 집중이 전쟁 승패의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현대 첨단 정밀유도무기의 발전은 전쟁 승패 요인으로서의 병력집중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즉 병력의 대량 집중이 아니더라도 정밀유도무기로 인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병력의 집중개념을 화력의 집중개념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유도무기의 정밀도와 살상력이 증대됨에 따라 유형 전투력을 어떠한 일정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양호한 표적을 제공하는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전에서는 부대의 생존을 위해 분산해야 할 것이다.

#### 4) 지휘통제의 원칙

지휘통제란 “부여된 임무달성을 위하여 군사작전을 계획, 지시,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편성·수단·절차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계획은 집권화 하되 실시는 분권화하면서 확실적이고 과도한 통제를 지양하여 예하부대에겐 작전의 융통성과 창의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sup>11)</sup>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수집기술의 발달을 고려할 때 지휘통제의 개념은 다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전장상황은 상급부대로 갈수록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급부대가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작전을 집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NCOE) 하에서는 각개병사까지도 어디에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실시간 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군대가 전쟁을 통해 군사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지휘통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

11) 육군본부, 전계서, 2005, pp,2-11.

## V.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새로운 군사작전 원칙 제안

### 1. 중심의 원칙

최근 전쟁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실제로 가시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군은 걸프전에서 이라크전시까지 약 1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공지전투개념에서 신속결정적작전, 특히 효과중심작전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는 이라크의 중심을 제거함으로써 적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최소의 희생으로 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하게 하겠다는 “어떤 체계가 정신적 또는 물리적인 힘과 행동의 자유, 행동의지를 획득하게 되는 일련의 특성, 능력, 힘의 원천”이다.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피·아 핵심적인 있게 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이다. 이 중심을 제거함으로써 적 체계 전체를 파괴하지 않”이다. 전쟁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미군은 중심을 “정신적 또는 육체적 힘, 행동의 자유 또는 행동의 의지, 행동의 의지힘의 원천이다”라고 정의하고 적의 중심을 파괴 및 무력화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군은 이라크전시 군사 수준별로 중심을 선정하여 이를 파괴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모든 전투력을 집중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 목표의 원칙을 중심의 원칙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 2. 집중과 분산의 원칙

앞으로는 네트워크 중심작전환경(NCOE) 하에서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 중심작전환경(NCOE) 하에서는 모든 전투원, 부대, 감시 및 타격수단 등 제 작전요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있기 때문

에 전장상황을 공유한 가운데 아군의 전투력이 분산되어 있어도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을 동시에 신속하게 집중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전투력을 동시·통합 운용할 수 있으며,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적의 전투력을 의도적으로 집중시켜 효과적으로 적을 격멸해야 한다. 그리고 집중의 목적도 적의 지역 점령 또는 부대 격멸에서 적의 정보체계 및 지휘체계의 마비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쟁초기에 적의 군대자체를 공격하는 것보다 정보체계를 방해·교란·파괴시켜 작전수행을 위한 기반을 제거함으로써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여 전쟁을 조기에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작전계획 수립 및 실시간에 전투력에 대한 집중과 분산을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3. 교란의 원칙

교란은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술이다. 현 ‘기동의 원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동을 통해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이점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동이 교란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란이란 “적이 계획적인 작전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함으로써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휘통제상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전투활동”이다. 즉 교란을 통해서 적의 체제 및 작전에 혼란을 일으켜 적 작전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적보다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란은 비대칭적이며 분쟁의 양면성에 따라 객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가용시간과 전투원, 그리고 예산을 소모하는 대신 적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공격수단이다.

#### 4. 속도의 원칙

결프전, 이라크전 등 최근 미군이 수행한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현대전의 특징 중 중요한 것은 작전템포와 지휘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및 장차전에서는 이 속도가 가장 중요한 군사작전의 원칙이 될 것이다.

속도는 템포가 중요하다. 템포란 “군사활동의 속도를”로서 전장에서 수행되는 군사활동의 속도와 리듬을 말한다. 템포는 상황에 따라 작전을 조정하는 능력을 말하며, 주도권 장악의 필수요소로서 작전상황에 따라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 따라서 작전템포를 우리가 조절하고 유지했을 때 주도권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장차전은 속도를 통해서 작전의 템포를 통제하고, 적이 효과적으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작전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속도가 모든 것을 주도할 것이다.

#### 5. 마비의 원칙

군사작전 원칙으로서의 마비란 ‘군사작전 활동을 통하여 적의 행동 또는 사고의 자유를 상실케 한 상태’를 말한다. 마비를 추구하는 목적은 적의 전투의지 및 능력을 박탈함으로써 최소전투로 승리를 달성함과 동시에 적의 마비활동으로부터 아군의 부대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작전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마비를 위한 수단으로 먼저 물리적 수단은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 정보우위, 분산전투 수행, 지휘속도 개선, 전장상황 공유, 기동 등이며 심리적 수단으로는 공보활동 등을 포함한 심리전, 컴퓨터네트워크 작전, 기습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 중 공격작전으로 적의 지휘통제체계를 파괴시 적은 효과적인 지휘통제가 제한되기 때문에

상·하 세대간 효율적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어 물리적으로 혼란이 발생될 것이며, 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행동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때 심리적 마비상태로 전이되어 더 이상의 전투의지를 갖지 못한 상태가 될 것이다. 한편 “인명중시”의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적의 피해를 유발하지 않음으로써 아군의 전쟁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6. 동시·통합의 원칙

동시·통합이란 ‘전 세대가 공통된 상황인식을 기초로 가용 전투력을 시·공간적으로 동시에 통합 운용함으로써 전투력 운용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동시·통합을 추구하는 목적은 가용 전투력 운용의 극대화를 통하여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동시성(synchronization)이란 ‘같은 때나 시기’를 의미하는 동시(simultaneous)와 네트워크 중심전의 특징 중 하나로 나타나는 ‘동일한 상황인식의 발전’을 뜻하는 동기화(synchronization)의 의미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통합성(Integrate)은 ‘다양한 전투력 효과의 집중을 위해 제 작전요소를 결합하고 시간, 공간, 효과 면에서 조정 및 통합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전투력 효과의 통합을 지향한다.’고 정의되어 있다.<sup>12)</sup>

이러한 동시·통합은 상하 세대간 동기화를 통하여 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동일한 전장상황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하며, 제 작전요소의 통합, 동시운용, 전 전장 동시전투 및 다양한 작전형태의 동시수행 시에 적용될 수 있다. 지휘관은 제 전투력의 동시운용을 통한 효과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우위를 기초로 전장상황의 공유 및 발전, 지휘체계의 유지에

12) 육군본부, 야교 3-0-1 「군사용어사전」, (2006). p.705.

노력하여야 하며 적의 동시·통합된 전투력 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미래 전장의 양상을 고려해 볼 때 합동성에 기초한 전투력의 동시·통합의 적용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원칙이 될 것이다.

## 7. 지휘통솔의 원칙

모든 군사작전의 핵심은 인간적 요소이다. 아무리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무기체계와 정보감시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간이 적시에 운용하지 못한다면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인간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OODA(Competed Observation, Orientation, Decision, Action)주기를 창안해낸 미 공군대령 보이드 대령도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은 마음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여 인간적인 부분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부대와 부대원의 사기는 지휘관의 지휘통솔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개인 및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고, 전장의 특성인 불확실성과 우연 그리고 위험과 육체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휘관(자)이 지휘통솔에 달려 있다.

미군의 걸프전 보고서 내용 중에 “걸프전의 승패는 첨단무기나 장비가 아니라 리더십, 훈련, 사기와 같은 인적요소에 의해 좌우되었다. 전쟁에서 승리는 기계가 아니라 결국 인간이 이루어 낸다.”라고 분석한 바와 같이 실제 전장에서 지휘관의 지휘통솔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존재하며 전투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지휘관은 이러한 전투지휘의 본질을 이해하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과거 수많은 전사를 분석해 보면 지휘관의 지휘통솔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폴레옹, 롬멜, 이순신, 맥아더 장군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명장들 이외에도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가 모르는 많은 지휘관(자)들이 훌륭한 지휘통솔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순신장군이 명량대첩에서 13척의 열세한 전력으로 왜군 130척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必死則生, 必生則死”(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정신을 장병들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는 전쟁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는 인간의 정신력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장병들의 정신력은 결국 지휘관의 지휘통솔력에 의해 배양되고 유지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대 및 장차전에서 지휘관에게 요구되는 지휘통솔의 요소로는 투철한 책임감과 적극성, 싸워 이기려는 강한 의지 그리고 전술 및 무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다. 지휘관의 임무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지휘관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대와 병사들로 하여금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게 하고 임무를 완수하려는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휘관은 전투실시간에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아군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여 아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 지휘관의 강한 의지는 곧 병사들의 전투의지를 더욱더 불태우게 만든다. 전투의지가 없는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하는데 어떻게 병사들이 전투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가? 따라서 지휘관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부대를 지휘해야 한다.

또한 지휘관은 전술 및 무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전술을 이해하고 전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무기체계의 발전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능력과 한계를 인식하고 부대를 지휘해야

한다. 이러한 “지휘통솔의 원칙”은 공격 및 방어작전 준칙에 구체화되어 포함되지 않더라도 전쟁을 수행하는 기반요소로서 항상 준칙의 밑바탕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인식하면 될 것이다.

## 8. 정보의 원칙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보는 군사작전의 핵심이 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군사지도자들은 전장에서 승리의 주 공헌자로서 정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식해 왔다. 지휘관들은 항상 적에 대해서 결정적인 정보이점을 추구하려고 노력해 왔다.

정보는 모든 작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작전을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정보가 모든 작전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이유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가용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되며 이러한 능력은 곧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버코비츠(Bruce Berkowitz)는 “과거 20년의 기간에 미국이 거둔 군사적 승리는 다음의 공통된 요인이 있었으니 그것은 적에 대해 정보의 우위를 점하는 능력이다. 반면에 모든 군사적 실패는 우리가 그러한 정보우위를 확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초래되었다.”<sup>13)</sup>라고 하여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래전장에서는 정보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될 것이다. 이 때문에 전쟁목표 또한 물리적 파괴나 영토확보 개념에서 적의 정보, 네트워크 능력을 파괴하여 전장 통제능력을 마비시키는 개념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 육군의 지상전개념서에는 지상전 기본개념을 “네트워크 동시·

---

13) Bruce Berkowitz, 『The New Face of War』, 문장렬 역.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p.1

통합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우위를 달성해야 한다. 현대 및 미래전에 있어 전쟁승리의 전제조건은 바로 “정보우위”이다.

따라서 기존의 군사작전 원칙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보의 원칙”은 전장환경변화와 전쟁수행개념이 변화되어도 반드시 필요한 군사작전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원칙을 공격작전 준칙에서는 “적의 강·약점 탐지”와 연계되어 적용할 수 있다. 적의 강·약점을 탐지하기 위해서 지휘관은 인간·신호·영상정보 등 모든 감시자산을 통합 및 중첩 운용하여 첩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리고 수집된 첩보는 분석과정을 거쳐 정보로 산출하여 상·하 전제대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전파해야 한다.

방어작전 준칙에서는 “전장감시”와 연계되어 적용할 수 있다. 전장감시는 적의 기도와 중심을 식별하고 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상대적인 정보우위 달성과 지휘관의 건전한 결심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21세기 우리 군의 핵심능력은 정보우위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첨단화된 정보장비와 기술력이 발전되어야 하며, 정보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획득된 첩보를 분석하여 이를 적시에 제공하는 정보관리능력이 요구된다.

## VI. 결 론

지금까지 군사작전의 원칙에 대해서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았다. 군사작전의 원칙은 전쟁을 수행하는 기본적 원리이다. 이러한 원칙은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얻어진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다. 이러한 군사작전 원칙은 고대로부터 수많은 군사이론가 및 전략가들이 나름대로의 이론을 제창하면서 이어져 왔다. 동양의 손자는 군사작전

원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손자병법” 내용에는 오늘날의 군사작전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양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조미니는 “전쟁술”에서 나름대로의 군사작전 원칙을 제시하였고, 19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의 풀러에 의해 군사작전 원칙이 정립되었던 것이다.

군사작전 원칙은 전쟁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써 또는 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써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군사 지도자에게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차원에서의 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평가에 지침을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군사작전 원칙은 “원칙”이라는 말 뜻 자체가 의미하듯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마음대로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군사작전 원칙의 대부분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의 전쟁을 통하여 얻어진 산물이다.

최근의 이라크전을 통하여 전장환경과 전쟁수행방식이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쟁은 신속결정전, 효과중심작전, 네트워크 중심전의 양상으로 수행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군사작전 원칙은 재고(再考)돼야 한다. 즉 현재 및 장차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 지상군 기본교리에 제시된 군사작전 원칙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원칙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군사작전 원칙으로 “중심”, “집중과 분산”, “교란”, “속도”, “마미”, “동시·통합”, “지휘통솔”, “정보”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들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현재 우리 교리에도 일부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 8개의 원칙이 기존의 군사작전 원칙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원칙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군사작전 원칙은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구현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는 부q원칙면이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화된 전쟁수행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떠한 원칙이 없을

까? 라는 명제 하에 전술한 군사작전 원칙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군사작전 원칙은 어떠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원칙들을 작전계획 및 실행에 어떻게 적용시켜 전쟁승리를 획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군사작전 원칙을 말 그대로 원칙으로만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못했다.

물론 군사작전의 원칙을 모두 적용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원칙이 중요시 될 수도 있고, 어떤 원칙은 배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실시간에 지휘관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사작전 원칙은 공격 및 방어작전 준칙과 연계되어 구현되어야 한다. 즉 원칙은 있지만 준칙으로 구체화 되지 않는다면 원칙으로써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현 군사작전 원칙은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이것이 곧 전쟁 및 전투에서 승리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최근 미군에서는 지금까지 적용해온 군사작전 원칙이 변화된 전장환경과 전쟁수행방식에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 대한 활발한 토의를 하고 있으며, 우리 육군에서도 현 지상군 기본교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사작전 원칙에 대해서 보완 및 추가적인 원칙을 제시하려고 연구 중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우리 군이 새로운 군사작전 원칙을 선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에 있어 제한사항은 현 육군의 지상군 기본교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사작전 원칙만을 다루었다. 우리 합참의 군사기본교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사작전 원칙과 해군 및 공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사작전 원칙을 포함하기에는 연구의 범위가 넓은 관계로 제외하였다. 특히 2009년 12월 합참에서 군사기본교리를 대신에 “합동기본교리”라는 명칭으로 교범을 발간하게 되며, 기존의 “군사작전 원칙”을 “합동작전

## 군사학연구 통권 제7호

원칙”으로 변경하게 되고, 원칙도 기존의 8개에서 10개로 추가 및 변경하게 된다. 따라서 차후 합동기본교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과 해군 및 공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칙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강영상. “미국의 전쟁원칙에 관한 연구”, 서울 : 국방대학원, 2007.
- 국방군사연구소. 「걸프전쟁 : 미 국방부 의회 최종보고서」.2003.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전쟁원칙의 신사고」, 2004.
- 권태영 외 3명. 「미래전 양상연구」.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2004.
- 김형진. “정보화시대의 군사작전의 원칙에 대한 소고”, 군사평론. 제388호. 2007.
- 남보람. “전쟁원칙에 대한 이론적 고찰”, THE ARMY 제1권
- 남보람. “시대가 변해도 전쟁본질은 변치 않아”. 국방저널 통권 제427호, 2009.
- 남보람. “50여년 만에 바뀌는 전쟁원칙”. 국방저널 통권 제425호, 2009.
- 류재갑. “전쟁수행 이론의 유용성과 한계성” 서울 : 국방대학원, 1985.
- 유인일. “우리는 전쟁의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하는가?”. 군사세계 통권 61호.
- 육군교육사령부. 「군사이론연구」, 1987.
- 육군대학. 「전투의 기본원리」, 군사평론 제333호 부록, 1998.
- 육군본부, 야전교범 0 「지상군 기본교리」, 2005.
- 육군본부, 야교 3-0-1 「군사용어사전」, (2006). p.705.
- 육군본부. “전쟁원칙 적용전망”. 1992.
- 육군본부. 「지상전 개념서」. 2007.
- 합동참모본부. 「이라크전쟁 종합분석」.2003.
-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1 「군사기본교리」, 2002.
- 해군전투발전단. “걸프전쟁의 군사작전 원칙 측면 분석”. 전투발전연구 제4호. 1998.
- 해군전투발전단. “Network 중심 전쟁과 전쟁의 원칙”. 전투발전연구 제10호. 2003.

Antoine Henri Jomini, "The Art of War", (이내주 역, 책세상, 1999)

Bruce Berkowitz, 『The New Face of War』, 문장렬 역. 국방대학교.

J.F.C. Fuller, *Armored Warfare*, (최완규 역, 서울: 책세상, 1999)

Robert R. Leonhard, *Principles of War for the Information Age*, (문

장렬 역, 서울 : 국방대학교, 2003)



##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Military Operations Coincident with Modern War

Lee, Kang-Un\* · Choi, Sung-Soo\*\*

The principles of military operations(principles of war) are the fundamental principles ruling warfighting that made based on the experiences of wars from the time of ancient Greeks to the World War II.

Recent wars such as Iraq War showed us the change of environment of war and the style of waging a war. It is believed that future war will be executed with the style of Rapid Deceive Operations, Effect Based Operations, Network Centric Operations. Therefor the principles of war which we use should be reconsidered whether it is useful or not in future warfare.

By considering the present principles of operation which are using in many countries and analysing the style of waging future war, we suggest new principles of operations : principle of gravity, principle of mass and dispersal, principle of disturbance, principle of speed, principle of paralysis, principle of synchronization and integration, principle of leadership, and principle of information.

*Key Words:* principles of military operations, principles of war,

---

\* Professor, Dept. of Military Studies, Daejeon University.

\*\* Instructor, Army College, Colonel

군사학연구 통권 제7호

warfighting, future war, environment of war, gravity, mass and dispersal, disturbance, speed, paralysis, synchronization and integration, leadership, information.